

도서 정가제는 출판문화의 '맥'

곳곳에서 할인판매 실시... 문화논리 배제한 출판정책은 파국으로 갈 뿐

김병준

(주)지경사 대표

새로운 한 세기를 코앞에 둔 지금, 출판계가 처한 어려움은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다. 반세기 동안 곳곳이 쌓아온 우리 출판의 저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몰린 것이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출판계는 그야말로 수난의 연속이었다. 국제 저작권 조약과 베른조약의 가입으로 저작권 사용료가 급격히 늘고, 느닷없는 한글 맞춤법 개정으로 출판계는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다. 도서 대여점 난립은 유통구조의 혼란을 가중시켰고, 창작의욕마저 꺾어버렸다. 다매체 시대의 본격 출현 또한 출판계의 숨통을 조르는 데 한몫 단단히 하고 있다.

총체적 난국 속에 정가제 붕괴 조짐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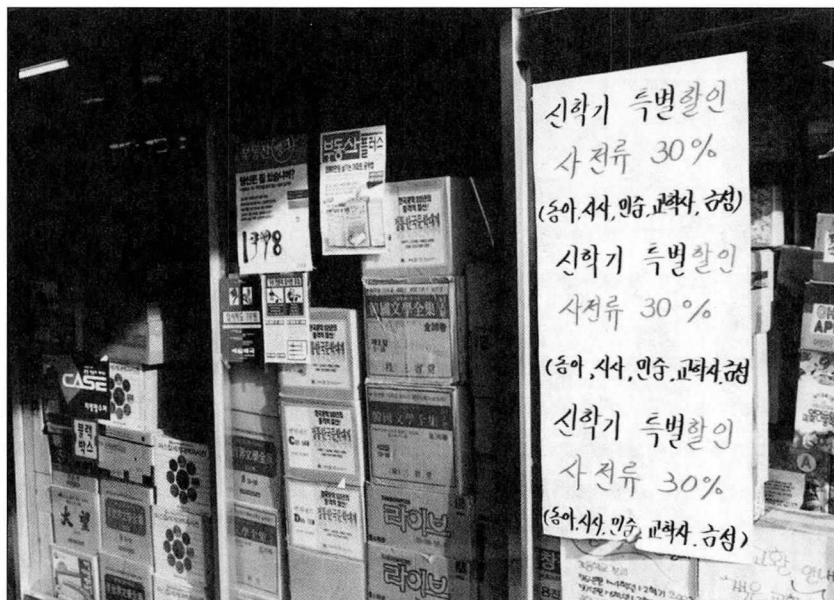
출판계는 이같이 소용돌이치는 변혁의 굴곡을 겪으며 인쇄매체의 붕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와중에 'IMF'가 터졌다. 종이값 폭등과 제작비 상승으로 올 1월 신간발행이 지난해에 비해 35%나 줄었다. 설상가상으로 보문당, 송인서점 등 대형 도매상이 줄줄이 도산하고 있다. 이제 책을 만들어도 유통망이 가동되지 않아

좋은 책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마저 어렵게 되었다. 거의 빈사상태다. 그리고 출판시장은 개방을 한다.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여러 형태의 뼈아픈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500억원만 지원된다면 출판계가 회생할 수 있다는 업계의 안타까운 바람을 들으며, 다른 산업에 비해 턱없이 소박한 규모일망정 그래도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오늘의 출판을 지켜온 출판인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이렇듯 출판계가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난관에 부딪혔다. 바로 도서 정가제의 붕괴조짐이다.

개포동과 과천의 일부 서점이 할인판매로 재미를 보자, 곳곳에 도서 할인판매점이 발빠르게 생겨나고 있다. 서울 강남지역에서는 학습참고서에 한정했지만 대부분의 서점이 할인판매에 들어갔고, 한시적으로 서적상연합회에서조차 할인판매를 하겠다고 결의했다고 한다.

정가제의 붕괴는 곧 출판산업의 공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순간의 이익을 취하려 할인판매를 시도하려는 약삭빠른



서울 일대와 경기도 등의 서점에서 할인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출판·서점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출판사까지 생기고 있다. 급기야 할인판매에 출판사까지 덩달아 맞추려는 한심한 작태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 기회다 싶어 정부는 잡지와 학습참고서에 대한 정가제 폐지를 추진하려 하고 있고, 출판계의 각 단체는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서점조합연합

회가 공동으로 정가제 고수를 위하여 각 회원사에 자제를 당부하고 있지만 심상치가 않다.

정가제 붕괴로 심각한 부작용 초래

도서 정가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문제다. 섰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격이다. 이미 우리는 70년대에 도서 정가제 붕괴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뼈아프게 경험한 바 있다. 저작 활동의 위축과 출판·서점업계의 몰락을 가져왔으며, 결국 명목상의 정가만 치솟아 독자에게 피해를 주었다. 때문에 도서 정가제는 대부분 국가들이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책은 다른 상품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유지해온 최선의 제도였다.

94년 7월 EU위원회가 독일어권 3개국의 국경을 초월한 획기적인 도서 정가제를 시행한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영국 '북 트러스트 북 하우스(Book Trust Book House)'에서 조사한 영국 국민들의 도서소비는 7% 감소되었으며, 서점의 매출은 중·소형 서점의 경우 22% 감소했고, 대형서점은 14%가 증가했다고 한다. 또 정가에 있어서는 소설류가 평균 10% 인상되었으며, 비소설류는 13% 인상되고, 페이퍼백은 2% 인상되었다. 결국 영국은 잠정적으로 도서 정가제를 폐지했으나 정가의 인상만 부추기는 등 폐해가 잇따르고 있어 다시 원상 회복하는 쪽으로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도서 정가제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즉 독

가격할인 경쟁 전국적으로 확산

학습참고서·사전·전집물·단행본까지 모든 분야 10~30% 할인판매

서적의 할인판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회장 이창연)는 현재 서울 강남구·송파구·강동구·노원구, 경기도 고양시, 부천시 등의 지역 서점에서 정가의 10~30%씩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몇년전 창고형 할인점에서 베스트셀러를 중심으로 서적을 할인하여 판매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대대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들어 출판사와 도매상의 연쇄부도로 유통질서가 혼란되면서 할인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할인판매 대상 서적도 학습참고서부터 단행본, 아동도서, 사전, 월간지까지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고양시 서적연합회 소속 서점들은 사전류 30%, 참고서·아

동도서·단행본 20%, 월간지 10%, 전집류는 무려 70~30%씩 할인하여 판매한다고 공식화했다. 강남지역 서점들도 비슷한 수준에서 할인판매를 하고 있다.

할인판매의 성행으로 출판계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도서정가제의 붕괴가 가져올 결과를 놓고 이견이 분분한 것이다. 할인판매를 바라보는 출판계의 대체적인 시각은 소형 서점의 도산, 서적 가격의 상승, 몇몇 자본가의 출판계 장악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영국의 경우 정가제를 폐지한 뒤 1년 안에 소·중형 서점은 13~22% 감소했고, 도서 가격은 2~13% 증가했다. 이러한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혈을 감내하면서 할인판매를 하는 것은 위기에 직면한 출

판사와 서점간의 교육지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강남에 있는 한 서점 관계자는 "주변에 있는 상설 할인점에 대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할인판매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강남에서 상설 할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정도윤씨는 "서점의 유통구조도 소비자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저가·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면 소비자가 많이 찾을 것이고, 결국 출판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출판문화협회 나춘호 회장은 지난 제51회 정기총회에서 정가제 유지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서련'의 이창연 회장은 "앞으로 정가제를 지키지 않는 출판사의 수급을 보류할 것이며, 판매 또한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가제에 대한 이견이 분분한 가운데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오완진>

어려울 때일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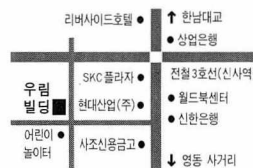
생각나는 친구

호황이라고 특별히 잘 나가는 것도 아니면서
불황의 그림자는 출판계에만
늘 질게 드리워집니다.

이렇게 어렵고 답답할 때일수록
좀더 효율적인 전문 인력으로서
저희가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삼연'은 단행본의 레이아웃과 교정에서부터
잡지, 아동물, 카탈로그 등 디자인 개념이 요구되는
각종 출판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일괄 작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인력과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쌓아 온 경험과 노하우도 만만치 않다고 자부합니다.



三現編輯室

SINCE 1989

137-030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6-15(우림빌딩 5층)
전 화 : 549-6883 ~ 5 팩 스 : 549-6877
천리안 ID : SAMYEUN

도서 정가제 붕괴로 인한

폐해는 너무나 자명하다. 우선

할인가격을 염두에 둔 명목상의

정가만 폭등시키고, 서점간

가격경쟁으로 영세 소매서점은

문을 닫게 되며 이로 인한

서점 카르텔화로 지역간 문화향유의

차등화를 가져온다. 출판이

다른 산업과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를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그것은 지켜져야 할 당위성을 스스로 갖고 있고, '상품'으로서의 책이 '문화'로서 기능하다는 출판의 본질적 양면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동안 정가제가 엄격하게 지켜짐으로써 출판물의 꽃인 단행본 시장이 오늘날과 같이 활발해지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출판시장의 규모가 커진 만큼 서점공간도 대폭 늘어났고, 더불어 보다 나은 독서 환경에서 국민들이 문화적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건 꽤 다행한 일이었다.

정가 폭등·서점 카르텔화 등 총체적 파국

도서 정가제 붕괴로 인한 폐해는 이미 쓰러진 경험과 수차례에 걸친 연구분석 결과로 너무나 자명한 일이지만 그 심각성을 고취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열거해 보고자 한다.

첫째, 애초에 할인 가격을 염두에 둔 명목상의 정가만 폭등시키는 결과만 가져온다. 이러한 명목 정가는 소비자와 서점, 소비자와 출판사간의 신뢰를 깨뜨릴 뿐 아니라 나아가 책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어 문화상품을 대하는 국민 정서에 악영향을 초래한다.

둘째, 서점간의 가격경쟁이 점점 치열해져서 영세 소매서점은 문을 닫게 된다. 소매서점이 도산하면 그 영향은 바로 도매상에 파급되어 유통대란이 일어나며, 서점의 카르텔화가 야기된다.

셋째, 서점의 카르텔화는 지역간 문화 향

유의 차등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도서 구입을 까다롭게 하여 국민 독서력의 저하를 가져오고, 또한 소비자가 도서 구입에 따른 간접비용을 물어야 함은 물론 도서 구입이 취약한 어린이의 경우 그 피해는 더욱 커서 독서교육에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넷째, 저작 사용료는 보통 정가의 비율로 산출하는데, 결국 명목 정가의 상승은 곧 저작 사용료의 폭등을 의미하여 또다시 정가 인상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정가를 알기 어려워 저작 사용료에 대한 저작자와 출판권자간에 불신이 생기게 된다.

다섯째, 책의 유통관리가 더욱 복잡해져서 물류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출판사는 기획, 디자인, 미술, 편집 등 문화적 전문성을 자연 소홀히 할 수밖에 없으므로 문화의 전문화가 소멸된다.

여섯째, 서점의 적극적인 도서 임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책의 다양화가 막히고, 고급 출판물의 사양화로 창작의욕이 감소된다. 특히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신인 저작자의 창작활동은 더욱 피해를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일곱째, 출판시장의 개방으로 외국의 다국적 기업이 무차별적인 가격 파괴, 덤핑을 자행하여 중국에는 굴욕적인 문화 식민지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정책은 해당산업의 경제적 논리와 국민의 복지를 염두에 두고 시행되어야 한다. 출판산업이 다른 산업과는 달리 국민 정서의 함양에 바탕을 둔 문화·교육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논리를 배제하고 단순히 경제적 논리를 도입한다면 낭패를 볼 게 틀림없다. 출판이라는 문화적 연결고리가 끊어짐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게 될 총체적 파국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 당국에 다시 한번 촉구하며 출판계와 서점계가 정가제 고수를 위해 각고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도서 정가제야말로 출판 문화의 맥을 지키는 근본이다. ❖